

지리산의 희망 씨앗을 찾아서

지리산생명연대

글 · 최이삭 redsummer312@gmail.com

지난달 17일 전라북도 남원의 지리산생명연대에 다녀왔다. 이 단체는 1999년,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 계획에 반대한 190개 시민단체연합인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에 뿌리를 두고있다. 2002년에 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이후에 단체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 지리산에 거점을 둔 환경단체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모여 지리산생명연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환경이라는 자못 어렵고 세련된 주제로 지리산생명연대는 어떻게 풀뿌리가 되어 왔을까. 최화연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역민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

마을을 둘러보니 젊은 사람이 많지 않던데.

태생적으로 외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엔 서울과 수도권 사람이 회원의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회원도 많아졌다. 지

리산권의 인구 분포는 물론 매우 고령화 되어있다. 마을 청년회에선 50대도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활동가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하긴 힘들지만, 그분들도 분명 아신다. 주민들의 의사를 표출해야 하는 순간에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자회견이나 공동집회 때 참여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

지리산생명연대의 활동은 가치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는 서울 사람들의 못된 짓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환경단체는 사실 칭찬받을 일이 거의 없다. 개발하지 못하도록 판죽 건다는 인식이 강하달까. 이 앞의 2차선 도로가 60번 지방도로인데 2004년에 4차선으로 확장될 뻔한 적이 있었다. 그걸 지역 주민들과 함

께 저지했다. 사람들은 개발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크고 넓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운전할 하면 체감 할 수 있는데, 2차선에서는 사람이 튀어나올까봐 서행하지만 4차선이 되면 과속하게 된다. 또, 도로가 좋고 넓으면 길이 너무 잘 나있기 때문에 동네에 들러 밥 한 끼 더 먹고 갈 수도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휙 지나가게 된다.

그때 우리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길이 뚫리면 지역이 발전 될 텐데 재들이 막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도로 확포장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고집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의 토박이분들 중에서도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도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인월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지리산'과 '환경'은 사실 전국적인 이슈지 남원시만의 이슈는 아니다. 이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이어가려면 다른 활동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환경단체로 시작했고 그 정체성도 물론 계속 가지고 있지만,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을 바꾸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6년에 우리의 방향에 공감하는 눈 밝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풀뿌리 주민활동가 교육프로그램 '희망씨앗찾기'를 시작했다.

사무실이 실상사 쪽에 있을 때는 주변

유관단체들과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어 '실상사 작은 학교'라는 대안학교와 '한생명공동체'라는 지역복지운동단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을 베이스로 주민자치 운동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상태랄까.

지리산권역 네트워크도 하고 있다. 5개 시군을 대략 지리산권으로 잡는데, 전북 남원 말고도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 함양군, 산천군이 있다. 이 권역을 네트워킹 하는 것이 지리산생명연대의 비전이다. 현재 지리산권 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사업으로는 매년 '지리산 문화제'를 지리산 권역을 돌면서 자치적으로 열고 있다. 최근엔 지리산권 지방선거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국제 심포지엄 장소 앞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의 뜻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진을 봤는데, 케이블카 설치 반대가 정말 국민의 뜻일까?



최화연 지리산 생명연대 사무처장



지리산 문화제



지리산 활동가 수련회

케이블카 설치하는 지리산뿐만 아니라 설악산, 한라산 등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이동경로 주변을 다 없애야 한다. 나무도 뽑고 돌도 깎아야 한다. 지형만 파헤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는 가동하면서 소음을 내는데 그제 인간에게는 대수롭지 않더라도 야생동식물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이고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비교적 보존도 잘되고 있다. 반달곰 복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복원과 개발을 함께 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케이블카가 적자운영 중이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곳이 지리산 천왕봉인데 그 높은 봉우리를 힘들이지 않고 오르내렸을 때 산을 오르는 행위의 상징이 어떻게 변색하겠나.

사람들에겐 지리산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 심기를 일전하고' 같은 문

장들은 관용적으로 쓰이지 않나. 천왕봉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그런 상징성도 함께 사라질 거다. 또, 그보다 낮거나 유명하지 않은 산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천왕봉에도 설치했는데 다른 봉들에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는 어떤가. 댐이 생기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농사만 짓는 것보다는 밥 먹고 살기 편해지지 않겠나.

이 지역이 산간지역이라 농토가 적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복합적이다. 약초를 캔다거나, 양봉을 하거나 꽃감을 말린다. 그런데 댐이 건설되면 거대한 면적이 물로 뒤덮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개일수가 늘어난다. 일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쪽 뱀사골 쪽이 사과가 유명하는데 사과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이라 잘 안될 테



댐건설반대 : 지리산댐을 반대하는 함양주민과 수몰예정지 주민이 릴레이 일인시위와 주민행동에 나섰다.

고, 꽃이 피지 않으니 양봉도 안 되고, 꽃감도 맛있게 말할 수 없다. 일교차가 크지 않을 테니까. 댐 예정지엔 문화제도 굉장히 많다. 10개 쯤. 그제 습기의 영향으로 파손될 거다.

군청에선 댐 옆에 레저 시설을 지어서 고용을 늘리고 관광객도 유치하겠다고 홍보 하지만 큰 댐으로 관광가는 문화는 지난 지 오래다. 나 어릴 때나 소양강 댐 생겼다고 놀러갔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는 것은 사실 실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관념의 영역이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만 있을 뿐이다.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념의 선이 굳어져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게 맞다.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사람도 관념으로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당위적이고 모범적인 입장을 떠나 사람은 왜 생태계를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하나.

사람이 생태계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태와 환경이 사람과는 멀리 떨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생태계의 일원이고 사람 옆의 새, 나무, 벌, 땅 속의 지렁이와 미생물까지 사람과 모두 연관되어있다. 그물 같은 거다.

예전에 도법스님이 지리산성지화운동을 하자고 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건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 같다고 하더라. 그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성스러운데, 살아있는 이 지리산을 성지화하는 것이 뭐가 종교적이냐, 너무 일상적이어서 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 하셨다. 살아 있다는 성스러움은 사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다.

글 최이삭 | <희망세상> 독자편집위원